

번호: OP-F-007					
제 목	비만 여부에 따른 폐경 여성의 유방암 발생위험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Does obesity increase postmenopausal breast cancer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김연주1), 최지엽1), 이경무1), 박수경2), 강대회1), 안세현3), 노동영4), 유근영1)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Yeonju Kim1), Ji-Yeob Choi1), Kyoung-Mu Lee1), Sue-Kyung Park2), Daehee Kang1), Se-Hyun Ahn3), Dong-Young Noh4), Keun-Young Yoo1)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gju, 3) Department of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4) Department of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분 야	역 학 [암]	발 표 자	김연주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 연
<p><b>목적:</b> 비만과 유방암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아시아인 폐경여성에서 비만에 따른 유방암의 발생위험에 대한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관 환자-대조군 연구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폐경여성이 비만 여부에 따라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p> <p><b>방법:</b> 1997년부터 서울 지역의 5개 의과대학 병원 외과에서 과거력상 악성종양이나 양성 유방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거나, 난소 적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 조직학적으로 침습성 유방암으로 새로이 진단받은 여성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한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10세 간격 연령대로 1:1 빈도 짝짓기 하여 최종적으로 753명의 환자와 753의 대조군, 총 1506명의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유방암의 가족력, 첫 만삭임신연령, 만삭분만횟수, 초경연령, 폐경여부, 폐경연령, 호르몬요법투약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p> <p><b>결과:</b> 대조군, 환자군의 폐경여성 비율은 두 군 각각 62%이었다(<math>p=0.42</math>). 폐경여부에 따라 층화하기 이전에는 입적당시의 체중, 신장 및 체질량지수와 유방암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폐경 전 여성에서는, 현재의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유방암과 명확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현재 체중이 62kg 이상인 경우 48kg 미만인 군에 비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2.8배 높았다(<math>OR=2.79</math>, <math>95\%CI</math> 1.05-7.43). 폐경 후 여성에서 체질량지수(<math>kg/m^2</math>)가 25.0 이상인 경우 18.6이상 22.9이하의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1.6배 증가하였다(<math>OR=1.55</math>, <math>95\% CI</math> 0.98-2.46). 체질량지수 증가에 따른 유방암 발생위험은 경계역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math>p</math> trend=0.07). 신장이 클수록 폐경 후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math>p</math> trend=0.002).</p> <p><b>결론:</b> 본 다기관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유방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출산 및 여성호르몬 관련 요인들을 보정하고도 폐경 후 여성의 과체중 및 비만이 유방암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폐경기 여성의 유방암이 비만세포와 성호르몬 및 에너지대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생물학적인 기전을 지지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이다.</p>					